

뉴칼레도니아의 카낙(Kanak)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뉴칼레도니아 수도 누메아(Nouméa), 지방 도시 포야(Poya),
부라일(Bourail) 지역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PFR(Pacific Field Research) 7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PFR(Pacific Field Research) 7기 훈련팀에서 2007년 1월 1일 - 22일까지 뉴칼레도니아 수도 누메아(Noumea)와 두 지방 도시 포야(Poya), 부라일(Bourail) 지역을 중심으로 뉴칼레도니아 카낙(Kanak)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팀은 김경하 (경영경제학부 '02), 박주동 (경영경제학부 '02), 이보희 (글로벌리더십리더십 학부 '06), 정승호 (법학부 졸업생) 이상 4명으로 구성되었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서구 식민지 시대 남태평양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강국의 지배를 받았고, 현재 남태평양의 28개 섬나라 중에는 완전히 독립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 서구 열강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도 많다. 서구의 영향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대부분 퇴색하여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그들의 문화를 서구 문화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다. 본 리서치 팀은 지난 몇 년간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 중 서구 문화의 정착과 동시에 전파된 기독교를 자신들의 문화에 맞추어 변형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인 종족이나 또는 복음에 소외되고 밝혀지지 않은 종족이 많은 나라를 선별하여 리서치를 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 미전도 종족이 많은 국가를 선별하고 주변 섬나라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인구와 섬의 크기를 고려하여 멜라네시안의 최대의 섬인 뉴칼레도니아가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특히, 뉴칼레도니아는 주변국들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바누아투나 피지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뉴칼레도니아에 온다. 그 특징을 이용하여 뉴칼레도니아를 남태평양의 선교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뉴칼레도니아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느껴지는 생소함만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나라이며 국민들의 생활상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복음에서 소외된 그들을 효율적으로 복음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뉴칼레도니아 국민들을 통해서 남태평양의 주변국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가 진행될 것이 기대된다.

2. 조사의 목적

(1) 뉴칼레도니아의 의식주, 생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조사하여 지역과 지역 내 미전도 종족의 실체성과 종합성을 파악한다.

(2) 복음전파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선교 전략들을 도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교전략을 제언한다.

(3) 교회와 여러 선교단체에 알리고 구체적이고 질높은 중보기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조사 지역

뉴칼레도니아²의 수도 누메아(Nouméa)와 포야(Poya), 부라일(Bourail)

4. 조사 대상

멜라네시아계 원주민들을 통칭한 카낙족(Kanak)

5. 조사 기간 : 2007년 1월 1일 ~ 1월 22일

6. 조사 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PFR 훈련생 4명

- 1) 김경하 (02 경영경제학부) - 디렉터/예배부장
- 2) 정승호 (97 법학부) - 미디어부장
- 3) 박주동 (02 경영경제학부) - 총무부장
- 4) 이보희 (06 글로벌리더십학부) - 문서자료부장

(2) 통역자 1명

- 1) 깔탈로(Katallo) (프랑스어 통역) - The Rocky valley AOG church

7. 조사 방법

(1) 사전조사 :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 검색

(2) 현장조사

- 1) 관찰 조사
 - ① 마을 관찰: 살루이(Saloui), 네포(Nepou), 파이타(Païta) 외
 - ② 박물관 방문: 누메아 박물관, 치바우(Tjibaou) 문화 센터

² 뉴칼레도니아는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0km, 뉴질랜드에서 북쪽으로 1,700km 떨어져 있는 나라로, 누메아(Nouméa)는 뉴칼레도니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수도이고 포야(Poya)와 부라일(Bourail)은 누메아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위치한 두 지방 도시이다.

- ③ 도시 관찰: 누메아, 포아, 부라일
- 2) 인터뷰
 - ① 전문가 인터뷰 - 현지 사역자, 파이타 마을의 전문의, 부라일 대학 교수
 - ② 일반인 인터뷰 - 프랑스 시위 현장 시위 참가인 외
- 3) 문헌 조사
 - ① 누메아 서점 - 관련 책자 구입
 - ② 치바우 문화 센터 내 도서관 서적
 - ③ 그 외 지역내 대학 등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는 4명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현장감과 종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보고서이며 특히, 구성원들 중 2명의 경우 남태평양의 다른 지역들에 각각 3, 4회의 조사 경험자로 조사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박물관, 도서관, 뉴칼레도니아를 소개하는 현지 서적, 인터뷰 등을 통해서 뉴칼레도니아에 대해 개괄적인 틀과 전체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수도에 있는 한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직접 인터뷰하고 관찰한 최신의 정보들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의의이다. 그리고 뉴칼레도니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두번째로 큰 도시인 부라일과 그 옆 도시 포아에서 현지 경험이 충분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통역 깔팔로 목사님 및 다른 목사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선교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면이 이 조사 보고서의 질을 높여 주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현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카낙족 마을 부족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숙식하며 조사할 수 있어 더욱 실제적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사전조사된 내용을 현장조사를 통해 교정,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짧은 기간에 질 높은 조사가 가능하였고 이는 본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거의 정보가 없었던 그들의 일상 생활과 문화를 참여, 관찰하였고 부족장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교제를 통해 조사가 가능했다는 점에 이번 리서치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휴가(holiday) 기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휴가 기간인 1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관공서, 학교, 교회, 은행, 대학교 등 모든 기관들이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심도있는 조사에 제한이 있었다. 둘째,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프랑스어를 거의 준비하지 못한 한계이다. 통역자를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하였으나

현지인들과의 개인적인 인터뷰나 만남에 제한이 있었다. 이후 조사시 현지와의 사전 연락을 정확히하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신분증명서 등 등 사전 준비를 할 것을 제언한다.

II. 들어가는 말

남태평양 여러 나라들의 기독교는 서구 식민지 시대 때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와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높은 기독교 복음화율을 보여 세계 선교계에서는 태평양 지역을 향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지역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명목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뉴칼레도니아도 역시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래 전 서구 열강의 진출은 식민지였던 나라에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종 갈등을 초래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오늘날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해외 준주³로서의 자격을 가진 나라이다. 뉴칼레도니아가 다른 주변 섬나라와 구분되는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프랑스의 오랜 통치로 인해 개발된 니켈 산업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으로 태평양의 다른 섬나라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뉴칼레도니아에는 수입을 위해 주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이처럼 주변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뉴칼레도니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태평양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종교적인 면을 살펴보면 마을마다 쉽게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명목상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 이 나라의 기독교는 카톨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프랑스의 개신교 제한 정책으로 로마 카톨릭에 비해 더딘 성장율을 가진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프랑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카낙족과 독립을 원하지 않는 현지 프랑스인 간의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뉴칼레도니아의 복음화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가 있지만 본 리서치팀은 이런 상황속에서도 태평양과 열방을 품은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고 뉴칼레도니아가 태평양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선교 센터로 발돋움 하는 비전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뉴칼레도니아의 카낙족을 알리고 태평양 지역의 선교 중심지로 거듭날 뉴칼레도니아에 세계 선교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3 (海外準州: overseas department) 주(州)의 자격을 얻지 못한 해외의 행정구역을 말함.

Ⅲ. 뉴칼레도니아 카낙족의 현황

1. 일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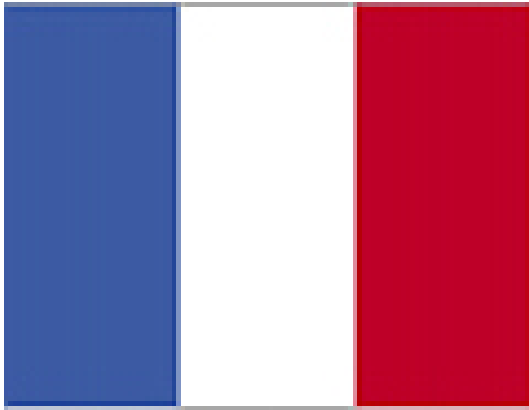
(1) 지역개관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혹은 누벨칼레도니(Nouvelle-Calédonie)는 태평양 남서부에 있는 호주와 피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 피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본 리서치팀이 방문한 누메아는 뉴칼레도니아의 남부에 위치한 수도이다. 포아, 부라일이라는 도시는 뉴칼레도니아의 본섬인 그랑테레(Grande Terre)섬의 에 위치한 도시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온화한 기후로 인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또 니켈 산업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뉴칼레도니아는 한국의 1인당 GDP⁴ 보다 1.25배 높은 \$15,000 (2003 est.)의 1인당 GDP를 가진 나라이다. 한편 기독교 복음화율이 88%에 달하지만 형식상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다. 누메아의 록키 밸리 AOG 교회(Rocky Valley AOG Church)에서 사역하시는 깔팔로 목사님과 윌슨(Wilson)장로님에 따르면 교인들이 풍요로운 생활과 뜨거운 날씨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포아 지방의 폴(Paul)목사님은 교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장로나 목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려고만 하며 하나님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다른 교회로 떠나거나 아예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일들이 많다고 한다.



〈지도 III-1〉 누메아, 포아, 부라일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⁴ \$12,720 (통계청 2003년 자료)였음.



〈그림 III-1〉 뉴칼레도니아 국기
(프랑스 령이므로 프랑스 국기 사용)



〈그림 III-2〉 카낙족의 국기
(카낙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그들의 국기사용)

(2) 정체성

뉴칼레도니아의 멜라네시아계의 원주민을 카낙(Kanak)족이라 한다. 현재 카낙족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카낙족의 언어, 즉 카낙어는 27가지였으나 프랑스가 오랜 세월 동안 억제한 결과 대부분이 사라졌다. 뉴칼레도니아를 소개한 책인 〈New Caledonia〉⁵에 의하면 카낙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드레후(Drehu)어이다. 드레후어는 리푸(Lifou)에서 온 말이며 폴리네시아어, 프랑스어, 영어가 혼합된 형태의 언어이다. 뉴칼레도니아를 소개하는 서적 등에는 공용어에 프랑스어와 함께 영어도 표기되어 있으나 영어 사용자는 주로 관광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로 한정되어 관광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는 못한다.

뉴칼레도니아는 인구의 65%가 카톨릭이고 23%가 개신교이다. 일부는 몰몬교, 불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제 7일 안식교, 바하이교 등이 있다. 수도인 누메아에는 유명한 관광코스 중의 하나인 성 요셉 성당(Cathédrale Saint-Joseph)과 개신교 교회(Temple Protestant)가 있다. 누메아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는 이곳으로 이주한 베트남인들이 세운 절을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묵었던 록키 벨리 교회 주변 마을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제 7일 안식교로 바꾼 사람도 찾아 볼 수 있었다.

(3) 분포 및 인구

⁵ (호주: Lonelyplanet, 2001) p.45 를 참고 편집하였음.

전체 인구는 약 219,246명⁶이다. 그 중에서 카낙족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인은 37%, 기타 태평양 섬주민들(왈리시아인, 인도네시아인, 타히티인, 바누아투인, 푸투나인등)은 13%, 아시아인(베트남인,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은 5%를 차지한다. 〈New Caledonia〉에 따르면 누메아에 전체 인구의 60%가 살고 있다. 인구 밀도는 한국이 463명/km²인데 비해 뉴칼레도니아는 평균적으로 10.5명/km²이다.

(4) 위치 및 환경

뉴칼레도니아는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0km, 뉴질랜드에서 북쪽으로 1,700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북위 18°~23°, 동경 158°~172°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뉴칼레도니아는 크게 본 섬인 그랑테레(Grande Terre), 일테팡(Ile Des Pins 불어로 '소나무 섬'이라는 뜻), 마레(Maré), 리푸(Lifou), 우베아 (Ouvéa)라는 섬으로 구성되고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작은 산호섬들이 분포되어 있다.

날씨는 대체적으로 온난한 편이다. 최고기온은 22℃~28℃이고 최저기온은 11℃~17℃사이로 연중 봄기온이다. 특히 2월이 가장 더운 달이라서 35℃를 기록한 적도 있다. 강수량은 해마다 평균 1413mm정도이며 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다. 그리고 이 시기에 모기가 가장 많다. 5월부터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서늘해지며 9월 중순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우기는 그랑테레섬의 전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뉴칼레도니아 섬 중심에 길게 놓인 중앙 산맥의 영향때문이다. 산맥의 영향으로 편 현상이 발생하여 뉴칼레도니아의 동쪽 편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반면, 서쪽 편은 건조한 날씨를 보이게 된다. 한 해에 200일 이상 온화하고 강한 무역풍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온다. 사이클론⁷은 12월과 3월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사이클론 기간을 전후한 한 달은 쌀쌀하다. 보통 일출은 오전 6시에, 일몰은 오후 6시이고 거의 변화가 없다.

(5) 역사

1) 오세아니아인의 정착

뉴칼레도니아의 본 섬인 그랑테레와 남쪽의 섬인 일테팡에 있는 고분과 암벽선화를 통해 기원전 7천년에서 5천년 사이에 동남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1-18세기에는 폴리네시아인과 사모아인이 섬에 이주해왔다.

⁶ CIA: 2006년 7월 추정치.

⁷ 열대성 저기압. 1년에 평균 5~7회 발생하며 그 규모는 작은 편이다.

2) 유럽인의 정착

16세기 후반에는 스페인이 신비스런 테라 오스트랄리스를 찾기 위해 섬 주변을 돌아다녔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그 뒤를 잇는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그랑 테레를 1774년에 발견하여 섬 모양을 보고 로마 제국이 칼레도니아라고 부르던 스코틀랜드의 고지대와 닮았다고 생각해 뉴 칼레도니아로 이름을 짓는다. 그 후, 섬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유럽인은 영국인과 미국인 포경선원들로 1840년 로알티 섬의 리푸(Lifou)에서 원유추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백단 목재를 벌목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서로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포경선원과 벌목꾼은 유럽인 사회에서 서로 융화되지 못했다.

3) 프랑스의 뉴칼레도니아 점령과 카낙족의 쇠퇴

1853년 군사적인 요충지를 찾던 나폴레옹 3세는 영국이 먼저 발견한 그랑 테레를 프랑스의 임무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공격한다. 프랑스가 진격해 들어오고 군사정부에 의한 통제가 19세기까지 이어진다. 프랑스 임무가 더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풍습이 약화되고 섬의 생활방식이 위협받게 된다. 노예를 위해 완곡어법으로 쓰여진 '노예로 팔린 사람은 20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들이 등장해 인구를 더욱 감소시킨다. 프랑스는 태평양을 그들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좋은 장소로 생각하고 1864년 5월부터 죄수들을 강제이주 시키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 코뮌으로 발생한 정치범들이었으나 후에 '낙원의 불행한 사람'으로 알려진 부랑자와 도둑들도 포함돼 있었다. 강제이주가 금지된 1897년까지 21,000명의 죄수가 뉴칼레도니아로 보내졌다. 니켈의 발견과 프랑스로부터의 자유로운 정착이 시작되면서 유럽인이 소수민족의 땅을 잠식하면서 인종간의 문제가 불거진다. 1878년에 발생한 프랑스에 반대하는 7개월간의 반란으로 인해 200명의 프랑스인과 1,200명의 카낙(kanak)인이 사망했다. 진압으로 인해 카낙 문화는 더욱 약해진다.

4) 카낙족의 현대사 - 독립을 향한 열망

세계대전 동안 많은 카낙족이 징병됐으며 2차 대전기간에는 미국인 4만 명이 뉴칼레도니아의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전쟁 후 식민지의 위치는 프랑스의 해외 특별지역으로 변한다. 전후 카낙족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으며, 마레 섬의 나이셀린 의장은 프랑스 국기 아래서 두 번의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사망한 카낙족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출생지의 법안'을 준비한다. 결국 카낙족에게는 1946년 시민권이 부여됐으며 1953년엔 최초의 정당인 유니온 칼레도니엔(Union Caledonienne)이 설립됐고 1957년에는 투표권까지 부여된다. 1960년대의 니켈 붐은 누메아(Noumea)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새로운 이민 바람이 시작되고 독립에 대한 의식이 고무된다. 그리고 1968년의 프랑스

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며 파리 학생시위를 목격했던 학생들이 뉴 칼레도니아로 1960년대 후반 돌아와 정치적인 자각과 독립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카낙족의 땅에 대한 독립과 복원이 1977년의 선거 안전에 채택됐으나, 카낙족은 자신의 영토에서 소수민족이 되어간다. 독립운동의 전환점이던 1984년부터 레 에베네먼트(Les E'vènements- The Event)로 간단히 불리는 2년간의 혼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프랑스 사회주의 정부의 재편에 대한 공허한 환상을 버리고, 몇 개의 독립정당들은 장 마리에 지바우(Jean-Marie Tjibaou)를 지도자로 해 카낙 사회주의 국가 해방전선(FLNKS;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 Kanak et Socialiste)을 형성한다. 해방전선은 1984년의 특별지역 선거를 보이콧하고 폭력투쟁을 전개해 국가를 흔들어 놓는다. 해방전선의 급진적인 지도자가 라 포(La Foa) 인접 지역에서 민간경비대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한 후 폭동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프랑스는 낙하산 부대를 투입했고 6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선거 보이콧이 다시 발생했고 암살과 폭발이 누메아 중심을 흔들어댔으며 그 이후 협정이 조인된다. 프랑스는 1986년 뉴 칼레도니아를 자치허용 국가 리스트에 허용함으로써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호주와 유엔과 싸운다. 프랑스는 내정을 간섭할 목적으로 운동을 전개했고, 독립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던 호주 총영사를 누메아에 추방시킨다. 1989년의 평화협정을 팔았다고 믿던 세분된 카낙족 조직에 의해 지바우가 암살 당한다. 90년대에 들어 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우파와 독립 지지자간의 조화와 평화를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1998년 5월에 누메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빠르면 2013년까지 독립을 연기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뉴칼레도니아로 점진적으로 옮기는 것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한 협약이다.

2. 정치분야

(1) 개요

카낙족은 뉴칼레도니아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뉴칼레도니아의 정치로 대신한다.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의 해외 준주⁸로서 독립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1946년 프랑스 정부는 카낙족에게도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1998년 누메아 평화협정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력을 뉴칼레도니아로 점진적으로 옮기며 2014년 까지 독립을 유보한 상태에 있다. 또한 이 협정에 의하면 뉴칼레도니아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은 그 땅에 지속적으로 10년을 살아야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최근 이러한

⁸ 주(州)에 준하는 형태. 준주에는 조직 또는 법인화 된 것, 미조직 또는 미법인화 된 것, 독립 영역, 신탁 통치령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선거권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프랑스인들의 요구가 있었다.



〈사진 III-3〉프랑스인의 선거권 제한 철폐 시위 현장-1

(2) 정치구조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의 해외 준주로서 프랑스 국민의회에 2명의 의원, 상원에 1명의 의원을 보낸다. 자문 입법 기구로서의 준주의회가 있으며, 뉴칼레도니아 섬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로열티 제도⁹의 3개의 자치지역의회가 있다. 이들 의회들은 프랑스에서 임명한 고등관무관이 감독한다.

3개의 자치지역의회가 모여 의장을 자체 선출함으로써 준주 의회를 구성하며, 준주의회 의원은 48명으로 보통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한다. 포야(Poya)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남북으로 하나의 정부에 두 명의 정치적 대표가 있는데, 남쪽은 프랑스인 그리고 북쪽은 카낙족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뉴칼레도니아의 두 개의 대립하고 있는 주요 정당으로 RPCR (Rally for Caledonia within the Republic) 과 FLNKS (Kanak Socialiste National Liberation Front) 가 있다.

(3) 행정구조

프랑스의 대외영토로써 뉴칼레도니아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공화국 안에 통합되어있다. 그래서 프랑스 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의회 의원을 파리로 보낸다. 특정한 입법은 규정

⁹ 마레(Maré), 리푸(Lifou), 우베아 (Ouvéa).

되지만 교육, 보건, 노동과 같은 분야와 영토의 주권에 관한 법은 프랑스의 법을 따른다. 또한 국방에 관한 권한, 내부 방위, 입국, 라디오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 등은 프랑스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위 위원회의 대표자를 통해 관리된다. 그러나 보건, 사회 보안, 교통, 산업, 기간시설에 대한 권한은 상위 위원회와 지역적으로 선발된 대표자에 의해 나누어 진다. 시와 지방에 대한 행정은 국가가 통치한다.

(4) 요약

뉴칼레도니아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나 현재는 프랑스의 해외 준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카낙족에게도 프랑스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1998년 누메아 평화 협정 이후 2014년에 투표를 통해 뉴 칼레도니아의 완전한 독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이 유보된 상태에 있다. 최근 뉴칼레도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투표권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는 결국 2014년에 있는 투표에 프랑스인들의 정치적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여, 독립을 저지하기 원하는 의도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독립을 원하는 카낙족은 프랑스인들의 요구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인들의 투표권 제한 철폐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칼레도니아가 프랑스의 해외 준주로서의 자격을 가진 후에 카낙족과 프랑스인들이 겹으로 보기엔 조화롭게 잘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카낙족 대부분이 프랑스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철저한 동화주의 정책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 뉴칼레도니아에 프랑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곧 뉴칼레도니아의 선교 전략을 고려 할 때 도 신중하게 반영되어야 할 점이다. 뉴칼레도니아의 종교에 대한 통계에서 80% 이상의 카톨릭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



(사진 III-4) 프랑스인의 선거권 제한 철폐를 위한 시위 현장-2

3. 경제분야

(1) 개요

카낙족의 경제는 정치 분야와 마찬가지로 뉴칼레도니아 전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뉴칼레도니아의 경제에 대하여 우선 서술하고 추가적으로 카낙족의 경제실태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뉴칼레도니아의 경제는 광업과 야금산업¹⁰에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는 관광 산업이고 세 번째는 농업, 어업, 그리고 양식업으로 산업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가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주로 음식과 기계, 운송 수단 등 수입품의 5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무역 균형의 차이를 줄이는 것과 전기, 주택, 직업 창출, 고속도로 건설 등은 프랑스의 방대한 지원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카낙족은 생계 유지를 위한 농사를 하고 있다. 부시 지역에 사는 카낙족 부부의 평균적인 수입은 카낙족이 누메아에서 버는 액수의 반 정도이고 수도 누메아에 사는 유럽 인들이 버는 액수의 25% 정도이다. 최근에는 직업 훈련 시설과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카낙족도 서비스 산업에 진입하고 있고 행정과 관료 계급에 진입하고 있다.

(2) 산업구조

1차 산업은 전체 산업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목축업, 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채소류를 주로 농사를 짓지만 산간 지방이 많아서 농지가 많지 않다. 그리고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한다. 또 주로 소를 많이 목축하고 있다. 차를 타고 뉴칼레도니아 외곽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가의 넓은 평원에 많은 소들이 방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업 분야에서는 1800종이 넘는 어류가 잡히고 수출품목 중의 하나이다. 2차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니켈 산업이다. 뉴칼레도니아는 세계에서 니켈 생산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켈 산업으로 정부와 국민 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Posco)도 이 지역의 니켈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많은 카낙족이 이 니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3차 산업인 관광 산업 또한 뉴칼레도니아의 주요 산업이다. 관광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업 또한 발달 되어 있다. 수도인 누메아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텔들과 상점들이 많이 있다. 주로 유럽인들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며 호텔에 가도 영어 보다는 프랑스 어와 일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많이 있다.

¹⁰ 광석에서 공업적으로 쇠붙이를 골라내거나 합금을 만드는 일.

(3) 발전수준

1) 일인당 GDP와의 비교

2003년 CIA 조사에 의하면 뉴칼레도니아의 1인당 GDP는 \$15,000이다. 한편 같은 해 한국의 1인당 GDP는 \$12,720이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뉴칼레도니아는 GDP \$10,000이상의 발전된 국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보호 아래 있으며 프랑스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 주택, 도로 건설 등 여러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높은 GDP는 카낙족이 스스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유럽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 낸 결실이다.

2) 경제적 불평등

카낙족에게만 적용되는 경제적 불평등 정책은 없다. 하지만 카낙족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 한가지로 그들은 직업을 구할 때 여러 한계점을 갖는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갖추어야 할 여러 자격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카낙족은 대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미 뉴칼레도니아에서 여러 산업을 시작했고 카낙족은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3) 지역 발전 수준

도시에는 유럽인들과 카낙족이 50%의 비율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대개 고용주는 프랑스 인이나 유럽인들이 많고 카낙족은 피고용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다니면서 의료 보험 제도나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지방에 사는 카낙족 사람들은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시내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산업으로는 공항에서 타운으로 가는 중에 도로 공사가 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는 표시를 만들어 놓아서 운전자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4) 주요상품

카낙족의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는 뉴칼레도니아의 천연 자원품으로는 니켈, 크롬, 철, 코발트, 망간, 은, 금, 납, 구리 등이 있다. 농업 생산물로는 타로, 만옥, 고구마, 감을 주로

생산해서 먹고 다른 농산물은 수입한다.

(5) 요약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경제 원조로 매년 \$525,000,000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주요 무역 상대국도 프랑스이다. 또한 경제 활동의 중심에 유럽인들이 있고 카낙족은 유럽인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카낙족은 직업을 얻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프랑스어를 배우고 직업에 요구되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카낙족의 선교에 중요한 접착점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얻을 때 필요한 정보와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 그들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다. 이제는 카낙족이 프랑스 사람들이 세운 기업의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인으로 세워지는 길도 열려져야 한다.

4. 생활분야

(1) 개요

카낙족은 뉴칼레도니아의 원주민으로서 부족만의 마을을 구성하여 살기도 하고 도심에서 유럽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도 한다. 마을을 구성하여 사는 부족의 경우에도 외부와 격리되어 자신들만의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거나 농경, 목축을 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카낙족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여가를 즐긴다. 보통은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하고, 점심 시간에는 집이 가까울 경우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1시에 다시 일을 시작하여 오후 4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한다. 퇴근 후에는 요리, 텔레비전 및 DVD 시청 등을 하고 휴식을 하며 하루를 마친다.¹¹ 그러나 카낙족은 현대화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다. 마을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행사에 참여한다. 여자들은 마을의 공동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그 동안 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행사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참여한다.

뉴칼레도니아에는 1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3개월간의 휴가 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 동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거나 긴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¹¹ 네포(Nepou) 마을, 2007년 1월 17일 두조(Doujo) 추장님 인터뷰를 토대로 편집한 것임.

(2) 식생활

카낙족은 평소 바게뜨 빵에 버터와 잼을 발라 먹거나 쌀과 닭고기 요리, 생선 구이 등을 함께 먹는다. 특별한 마을 행사가 있는 날에는 닭고기, 생선, 감자, 게 등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마을회관에서 모두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매 끼니마다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끓여 각자 그릇에 가루로 된 우유와 코코아, 커피 등을 타먹거나 녹차, 홍차 등을 타서 마신다. 그리고 콜라나 오렌지 주스 등 가까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탄산 음료를 마시기도 한다. 시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과 커피나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는 카페나 바(bar)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누메아에 있는 해변의 호텔 주변에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위치해 있고 공원에는 바게뜨 빵에 야채와 고기를 넣어서 만든 샌드위치와 베트남 음식을 도시락처럼 판매하는 간이 이동식 차량 식당이 있다.

(3) 의복

카낙족의 남성들은 평소 반팔 티셔츠나 남방을 입고 하의는 반바지를 입는다. 특별한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화려한 색의 무늬가 있는 긴 원피스인 아일랜드 드레스(Island dress)를 입는다. 아이들은 평소에 반팔, 반바지 등 편안한 옷을 입고 생활하며 격식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여자 아이들은 아일랜드 드레스¹²를 입는다.



〈사진 III-5〉아일랜드 드레스 (Island dress)

¹² 아일랜드 드레스(Island dress)는 남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이 입는 전통복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얇은 천으로 만든 원피스 형식의 옷이다. 화려한 무늬와 색을 이용하여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다.

(4) 주거

카낙족의 전통 가옥은 그레이트 하우스¹³(the Great house)라고 불리는 나무와 풀로 엮어 만든 집이다. 원뿔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집은 나무와 나무를 덩굴로 엮어 기본 골조를 만든 뒤 그 위에 풀을 엮어 만든다. 가장 먼저 집을 지켜주는 신을 상징하는 형상을 새긴 높이 1.5m의 나무 기둥들을 서로 1m 간격을 두고 세워 기초를 쌓는다. 이 위에 긴 나무들을 가로로 엮어 엮는다. 집의 중앙에는 높이 20m의 나무를 세우는데 그 끝부분에도 집을 지켜주는 신을 상징하는 형상을 조각한다. 집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둥들과 가운데에 있는 나무 기둥을 연결하는 나무들을 중간중간 연결 부분을 만들어서 쌓아 올린다. 마지막으로 풀을 덮어 덩굴로 엮어 지붕을 완성한다. 집 안에는 깊이 30cm, 가로 70cm, 세로 70cm 가량의 땅을 파고 불을 피워 난방, 해충 방지, 조리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현재 카낙족의 마을 중 이 전통 가옥은 추장의 집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손님 접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카낙족 사람들은 현대식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도인 누메아의 경우에는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고 유럽풍의 단층이나 2층의 단독주택이 많고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연립 주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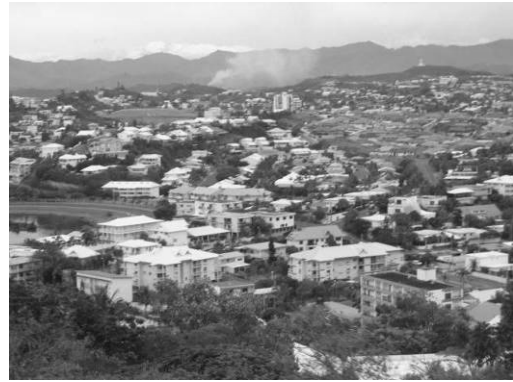


〈사진 III-6〉그레이트 하우스(The Great house)

¹³ The great hut, the big house, men's hous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드루베아(Drubea)어로는 브와카(Mwakaa)로 불려진다.



〈사진 III-7〉누메아(Noumea) 시내의 전경-1



〈사진 III-8〉누메아(Noumea) 시내의 전경-2

(5) 위생의료

카낙족을 비롯한 뉴칼레도니아 거주민들은 태어나면서 개인 고유의 건강 기록 카드를 갖는다. 이 카드에는 태어날 때의 몸무게 및 건강 특이사항 등이 기록 되고 병원에 갈 때 마다 평생 동안 이 카드를 소지해야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진료를 받든지 환자의 세부적인 건강사항까지 쉽게 알 수 있다. 뉴칼레도니아의 병원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아프게 될 경우 각 마을마다 있는 일반의사(General doctor)에게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일반의사는 환자를 진료하여 그 병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내린다. 병세가 심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알맞은 진료 과목을 결정하여 상위 단계의 종합 병원에 있는 전문의(Specialist)에게 환자를 보낸다. 환자는 일반의사의 진단서를 지참하고 전문의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된다. 만약,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여 전문의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비행기표, 숙박, 교통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호주나 뉴질랜드의 더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뉴칼레도니아에는 카팻(CAFAT)이라는 일종의 의료보험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일정한 직장을 가진 국민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용, 병원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 혜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카팻용지에 청구되고, 환자들은 이 용지를 모아서 카팻회사에 제출한다. 그리고 카팻회사는 환자에게 청구된 모든 비용을 병원 및 시설 의료 센터에 지불한다.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자영업, 농경, 목축업을 하는 국민들, 실업자의 경우에는 카팻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¹⁴

뉴칼레도니아의 수도와 큰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카낙족이 사는 마을에도 화장실은 각 가정마다 수세식으로 마련되어 있다. 카낙족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¹⁴ 누메아(Noumea), 2007년 1월 7일 윤승노 한인 회장님을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편집한 것임.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곳 역시 수세식 화장실이다.

카낙족의 옛 조상들은 나무나 바위 등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며 질병의 치유를 기원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그런 미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으며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뉴칼레도니아 내에 특별한 풍토병은 없다.

(6) 환경과 물

뉴칼레도니아의 전 지역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수도물을 바로 마실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경에 단수가 되고, 퇴근하는 시간인 오후 5시경에 다시 물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년 내내 특별히 물이 부족한 시기는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와서 마을마다 모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해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의 공터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려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 자라는 근원지가 되기도 한다.

(7) 교통

뉴칼레도니아는 모든 지역에 도로가 잘 발달해 있다. 도심 지역의 경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편도 3차선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 편도 1, 2차선 정도로 도로의 폭이 넓지는 않다. 그리고 사거리 지역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 라운드 바(Round bar)로 되어 있어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의 끊김 없이 물 흐르듯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카낙족을 비롯한 뉴칼레도니아의 국민들은 각 가정당 1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용은 대부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대중 교통은 버스, 택시가 있는데 누메아 시내의 경우에는 총 9 개의 버스 노선이 구축되어 있다. 버스의 승차 요금은 버스에 탑승하여 지불할 경우 성인 1인당 200CFP(페시픽프랑)이며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할 경우에는 성인 1인당 170CFP이고, 유아의 경우 1인당 130CFP이다.

뉴칼레도니아는 나라 전체적으로 해안을 따라 잘 포장된 편도 1차선의 도로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연을 고려하는 특성 상 갯길은 잔디나 풀 등으로 덮여 있고 주 도로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수도 이외의 지방 도시들에도 대중 버스가 있고 수도와 지방 도시를 왕복하는 흰색의 고속버스가 있어서 장거리 이동도 자가용 없이 가능하다.



〈사진 III-9〉누메아(Noumea) 시내의 차량들

(8) 대중매체 보급률

전기는 뉴칼레도니아 전역에 걸쳐 보급되어 있다.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상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산 속에 있는 카낙족의 마을에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공중전화도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일부 마을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석유를 이용하여 자가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사용한다.

뉴칼레도니아에는 두 개의 공영방송 채널이 있고 50여 개의 민간방송 채널이 있다. 민간채널까지 모두 보기 위해서는 방송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DVD 플레이어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카낙족 중에서도 DVD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DVD를 사거나 빌려서 시청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9) 요약

뉴칼레도니아는 높은 수준의 경제력과 오랜 기간의 프랑스 통치로 인한 유럽 문화의 영향으로 남태평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유럽의 모습을 띠고 있다. 카낙족 역시 프랑스 정부의 뛰어난 복지 정책과 전기, 상·하수도, 대중매체 등의 높은 보급률로 부족한 것 없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식수와 전기, 교통 등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충족되고 여가 시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길 정도의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뉴칼레도니아의 카낙족의

선교를 위해서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것을 통해 접근하는 방향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다. 카낙족의 선교는 그들 생활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5. 사회분야

(1) 개요

카낙족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카낙족을 도시에 유럽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카낙족과 지방의 마을에 자신들 만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카낙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핵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지만 마을에 있는 카낙족은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인 대가족 형태로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산다. 우리가 방문했던 네포(Nepou) 마을은 대가족이 이룬 마을이다. 도시에 사는 카낙족은 특별히 부족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독립된 개인으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 사는 카낙족의 마을에는 추장이 있다. 추장은 보통 대를 이어 직책을 세습한다. 추장은 한 주에 한 번씩 마을 회의를 연다. 이와 비슷하게 가족 안에서는 가장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이 죽으면 장남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가졌던 의사 결정권과 권위를 갖게 된다.

(2)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뉴칼레도니아에는 유럽, 중국, 베트남, 일본, 태평양의 섬나라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다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수도인 누메아에는 프랑스인과 카낙족의 수가 비슷한 만큼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도시에 사는 유럽인들과 카낙족 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연합해서 잘 어울려 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카낙족만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백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표현한다. 백인 뿐만이 아닌 다른 부족들도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예전에 살루이(SALOU) 라는 카낙족 마을에서 경찰관이 아무 허락 없이 마을에 들어왔다가 마을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다. 카낙족과 같은 멜라네시아 인을 동반하여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3) 현재 이슈

현재 뉴칼레도니아의 독립과 연관된 투표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998년에 맺은 누메아 평화 협정에 관한 것인데 1998년 이전에 뉴칼레도니아에 온 사람들은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1998년 이후에 온 프랑스 인들은 그 이후로 10년을 살아야 그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협정 내용 때문에 프랑스인들의 선거 참여에 큰 제약을 준다고 했다. 이 협정으로 인해서 2014년에 있을 뉴칼레도니아 독립 선거 투표를 못하게 되는 프랑스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2007년 1월 12일 누메아 중앙 광장에서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그 날 카낙족은 급히 다음 날인 13일에 이에 상응하는 반대 시위를 벌인다는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음 날 13일 프랑스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평화 협정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4) 요약

뉴칼레도니아에는 많은 부족들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카낙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아니라 여러 나라 문화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카낙족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하나되어 살아가고 있으나 뉴칼레도니아가 자신들의 국가임을 잊지 않으며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찾아가고 있다. 독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융합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본질적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카낙족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에 사는 카낙족은 이렇게 유럽인들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융합되어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끼리 마을을 이루어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철저히 지켜가고 있다. 이들은 친척들끼리, 자신들과 가까운 부족들끼리는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프랑스 세력과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적이다.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남자가 가장이고 절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이 죽었을 때는 장남이 그 가장의 가장이 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카낙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국민성을 잃지 않고 뉴칼레도니아는 자신들의 국가임을 계속적으로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나중에 나라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추장 중심, 가장 중심인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과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고 지속적인 양육과 교육이 필요하다.

백인들을 배척하는 지방 마을의 카낙족에게는 백인들과 잘 어울리는 카낙족을 양육해서 자신의 부족이 사는 마을로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지금,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을 초점으로 한 전략적 선교 사역들이 필요하다.

6. 문화분야

(1) 개요

카낙족의 조상과 가족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그림, 조각, 춤, 음악 또는 생활 예절에 있어서 잘 반영되어 있다. 고대 카낙족은 악령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조상신을 숭배하기도 했으나 유럽인들이 개척하고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선진 문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정도로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에 까지 현대식의 건물과 문화가 이미 존재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문화를 다시 일으키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 예술

카낙족의 음악은 주로 입회식,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전통 의식에서 연주된다. 특별한 행사에서 악기를 함께 연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악기 없이 노래를 한다. 보통 악기는 콘치 조개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그들은 그 소리가 조상신의 목소리라고 여긴다. 현악기는 찾아 볼수 없으며 대신에 브완젠크(bwanjek)이라고 하는 리듬 악기와 대나무 플룻이 있다. 악기는 카낙부족의 남자들이 연주한다. 카낙족의 음악과 춤은 그들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카낙족의 언어에는 음악과 관련된 단어는 없다.



〈사진 III-10〉누메아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들

카낙족의 미술은 비교적 카낙 문화에 대한 현대적인 예술관으로 접근하여 표현되어 있다. 버스 대합실은 여성 미술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캔버스가 된다. 카낙족의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조각이다. 고대 카낙족은 나무나 돌에 영혼을 조각했다. 오늘날에는 카낙의 영적 문화를 표현한 조각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나무 조각은 플랫 파이티에(the flèche faitière)라고 하는 토템 장대이다. 크게 상반부, 중앙부, 하반부로 나눌수 있는데 중앙부에는 조상신을 조각했다. 상반부에는 악령이 조상신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처럼 뾰족하게 깎았다. 하반부 또한 악령이 조상신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뾰족하게 만들었다. 즉 이 토템 장대는 조상신이 머무는 집의 의미로 만들어 졌다. 그 외에 돌 조각은 각 부족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 모양이다. 보통 비취색의 광택이 나는 돌 가운데에 두 개의 구멍을 뚫고 박쥐의 털로 그 구멍을 단단히 묶은 형태이다. 손잡이 부분은 특정 부족을 나타내는 상징을 조각한 조개나 돌로 장식되어 있다.

카낙족의 문화를 얘기할 때 그들의 춤은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예술이다. 그들은 춤을 통하여서 부족간, 조상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춤의 주제는 전설이나 낚시, 거북이의 해엄, 전통 가옥을 만드는 과정 등을 다룬다. 춤을 추기 전에 무용수들은 흰 물감으로 몸을 칠하는 데 이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춤은 발로 격렬하게 땅을 치는, 힘찬고 열정적인 스텝을 사용한다. 그들의 전통 춤을 필루(Pilou)라고 하는데 각 부족의 이야기나 카낙의 문화를 주제로 하는 춤이다. 모든 춤에서 스텝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지만 출생, 결혼, 전쟁 준비, 선교사의 도착에 이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있어 완전히 다르다. 필루는 중요한 의식에서 행해지는데 특히 새로운 추장이 선출되었을 때, 젊은 남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부족의 휴식을 준비할 때 행해진다. 과거에는 식인 풍습이 있어서 이 춤이 식인 의식에 행해지기도 했으나 선교사들의 고발로 지금은 없어졌다. 높은 에너지와 무아지경의 상태에 까지 이른다는 이유로 식민지 통치자에 의해 무용수를 포함해 필루가 금지됐다. 1951년을 마지막으로 필루가 막을 내렸다.



〈사진 III-11〉치바우 문화센터에서의 카낙족의 춤 공연

(3) 명절, 축제, 오락

뉴칼레도니아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가 휴가(holiday)의 개념이다. 12월말에서 3월초까지 휴가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다. 또 마을을 떠나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도서관과 같은 공공 기관도 1월 한 달은 운영을 하지 않기도 한다.

〈표 III-1〉 뉴칼레도니아의 명절

명 절	일 시	내 용
프랑스 혁명 기념일 (Bastille Day)	7월 14일	1789년 바스티유 감옥에서 일어난 프랑스 군중의 소동을 기념하는 날. 기념일 오전에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전날 저녁에는 가족과 아이들이 랜턴을 들고 코코티에 광장에 모여 불꽃 놀이를 즐긴다.
뉴칼레도니아의 날 (New Caledonia Day)	9월 24일	1853년 아우구스트 페브리에 데스포인트(August Febvrier Despointe) 제독이 뉴 칼레도니아를 프랑스 땅으로 주장한 날을 기념하는 날. 아무런 행사가 없는 휴일이며 카낙족은 전통적으로 이날을 애도하는 날로 여긴다.

〈표III-2〉뉴칼레도니아의 축제

축 제	일 시	내 용
암의 페스티벌 (Festival of the Yam)	3월 중순	카낙의 가장 중요한 축제. 암을 심고 나서 6달이 지난 뒤 추수하기 전에 하는 축제이다. 추수감사절과는 달리 흥겨운 분위기의 축제가 아니라 조용히 가족 또는 부족 단위로 보낸다. 누메아에 있는 카낙족은 각자 자기마을로 돌아간다. 축제의 공식적인 시작은 신성한 땅에서 철 암을 거둘 때 시작하고 그것을 각 부족장이나 추장에게 선물로 준다. 다음날은 교회에 모두 모여 사제가 추수한 암에 대해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라 레가트 드 투케 (La Regate des Touques)	5월	누메아의 안스 바티(Anse Vata)를 따라 장식을 물에 띄워보낸다.
퍼시픽 템포 (Pacific Tempo)	5월	태평양 전지역이 참여하는 3일간의 음악축제
포이르 드 부아일 (Foire de Bourail)	8월 말~9월 초	로데오, 가축 쇼, 경마, 미인대회가 열리는 국가적인 행사이다.
에퀴노스 (E'quinox):	10월	2년마다 열리는 현대 무용, 음악, 연극 축제로 누메아에서 열리며, 10월 말 또는 11월초에 인기 있는 빛과 소리의 공연이 라 포의 포트 트렘바(Fort Tremba)에서 열린다. ¹⁵

카낙족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다.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듯이 각 마을마다 잔디 구장이 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럭비, 크리켓, 페탄크(Pétanque) 등이 인기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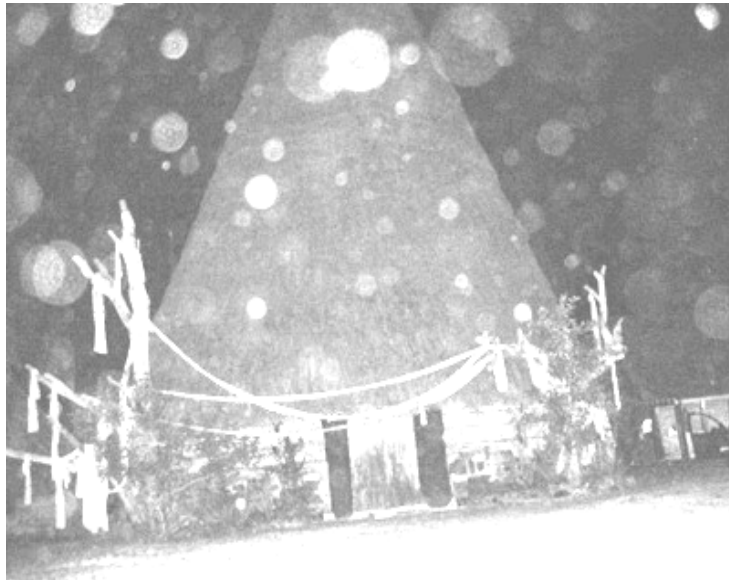
¹⁵ New Caledonia: 호주, 2001, 75p와 웹사이트

<http://www.shoestring.co.kr/destinations/aust/pac/newcalen.htm> 를 참고, 편집하였음.

게임이다. 쇠로 만든 무거운 공을 가지고 하는 페탄크는 프랑스에서 전해진 스포츠이다. 또 해변이나 공원 주변으로 조깅이나 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4) 결혼과 장례

결혼을 하면 마을에 있는 그레이트 하우스 앞 나무에 옷감을 걸고 단단하게 매듭을 짓는다. 매듭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의미한다. 장례 문화는 매장을 주로하고 집단 묘와 가족 합장 묘를 사용한다.



〈사진 III-12〉그레이트 하우스 앞에 옷감을 건 모습

(5) 예절

카낙족의 전통 예절을 라 꾸툼 (La Coutume)이라고 한다. 이는 카낙족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또 그들의 조상과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마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추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을에 들어서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카낙족이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공격할 수도 있다. 추장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이다. 선물 교환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물은 존경을 표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가진 의무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다. 서로가 가진 의무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다. 선물로는 대게 음식, 돈, 담배, 옷감 등이 있다. 선물을 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존경을 표하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을 추장이 선물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로 선물을 한번씩 뒤집는 식으로 손으로 선물을 한번씩

건드린다. 일단 선물이 받아 들여지면 마을 출입이 허락된 것이고 마을 안에 있는 동안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 교환이 끝나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6) 관광지 소개

누메아(Noumea)는 니켈 산업의 발달로 가장 발전되어 있고 뉴칼레도니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누메아는 작은 유럽을 연상케 할 정도로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다. 누메아 근처에는 가장 원시적인 해변인 남부의 안스 바타(Anse Vata)가 펼쳐져 있다. 또 가까운 항구에는 크루즈 선박, 어선, 요트가 정박해 있는데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누메아의 북쪽은 공업지역이고 유럽인들보다는 카낙족이 많이 몰려 산다. 누메아에서 가볼만한 곳으로는 치바우 문화센터(Jean-Marie Tjibaou Cultural Center)를 손꼽을 수 있는데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의 건축물이며 카낙 문화와 오세아니아의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양식인 비브리오페크 베른하임(Bibliothèque Bernheim)은 누메아의 주 도서관이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원이 딸려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스 바타에 있는 누메아 수족관은 희귀하고 평범하지 않은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 누메아 시내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누메아를 관광할 수 있는 꼬띠 트레인(Petit Train)을 볼 수 있다.

일테팡 섬(Ile des Pins)은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섬이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다. 카낙족이 많이 살고 있고 섬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인 쿠토(Kuto)가 있다. 또 형벌 식민지의 통치자의 주거지, 젠다메리(gendarmierie), 감옥 유적, 피추방자 공동묘지(Cimetière des Déportés)가 볼 만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섬에는 동굴들이 풍부한데 웬안이 동굴(Grotte de W'emwany)이 가장 유명하며, 오얏치아 동굴(Grotte d'Ouatchia)은 인상적인 바위 지형을 볼 수 있는 작은 지하통로가 연결되어 있다. 아름다운 터키색의 무릎 깊이의 물로 덮인 곳인 바이 오로(Baie d'Oro) 역시 많은 관광객을 끌고 있다.

히엥헨(Hienghène)은 1984년의 10명의 독립운동가가 학살된 곳으로 유명하며 해발 60m까지 돌출해 있는 검정색의 석회암 절벽인 린테랄리크 크리프(Lind'eralique Cliffs)가 있다. 크리프의 정상에는 날카로운 바위와 박쥐들이 서식하는 많은 동굴들이 있다. 작은 고아 마브와하트 문화센터(Goa Ma Bwarhat Cultural Center)는 일시적인 음악과 연극의 전설을 들려주는 공연이 열린다. 그랑 테레의 중부 산악에서 서부 해안으로 3일이 걸리는 등산코스인 체민 데스 아라브(Chemin des Arabes) 등산도 가능하다

부라일(Bourail)은 뉴칼레도니아에서 두번째로 큰도시이다. 이상하게 생긴 바위지역인 라로체 페르세(La Roche Percée)¹⁶가 유명하다. 현지인들은 얼굴형태라고 말하며 수위가 낮을 때 정상까지 등반이 가능하다. 일찍 등반을 한다면 바이 데스 토투(Baie des Toutues) 주변에서 거북이를 볼 수 있다.

¹⁶ <http://www.shoestring.co.kr/destinations/aust/pac/newcalen.htm> 를 참고, 편집하였음

가장 좋은 해변은 프라그 드 포에(Plagu de Pole)로 하얀 모래와 화려한 조개가 있으며 스노클링에 좋다.

7. 교육분야

(1) 개요

카낙족은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프랑스인과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뉴칼레도니아의 교육 과정은 프랑스 본토의 교육 과정과 같다. 교육의 혜택에 있어서 프랑스인과 카낙족 및 외국인들 간의 차별은 없다. 하지만 프랑스인에 비해 카낙족은 교육 받는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프랑스인 학생수의 비율이 카낙 학생보다 더 높다.

(2) 현황

〈New Caledonia〉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현재 약 1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있고 한 개의 대학교가 수도인 누메아(Noumea)와 수도에서 50분 가량 떨어진 국제 공항이 있는 마젠타(Magenta)에 두 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카낙족만의 학교는 1984년 프랑스의 교육 제도에 반대하여 두 개 정도가 생긴 적이 있지만 현재는 폐교되었다.¹⁷

뉴칼레도니아에서는 프랑스의 교육 제도에 따라서 만 2년 9개월부터 16세까지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 만 2년 9개월에 3년 간의 유아 교육 과정이 시행되고 이 시기에는 문자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후 만 6세부터 5년 간의 초등 교육 과정이 시작된다. 학생들은 승마, 수영, 요트 등의 교양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각 종목마다 전문 강사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그리고 매년마다 일련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낙제하고 다시 1년간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낙제를 하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다시 1년을 배워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여긴다. 중·고등학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것은 프랑스 정부에서 세운 일반 학교이고 그 외에 가톨릭 학교, 장로교 학교 등이 있다. 가톨릭 학교와 장로교 학교에서는 1주일에 일정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까지 거치고 나면 기본적인 교양 과목은 모두 이수하게 되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 덕분에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¹⁸ (BAC)를 통과한 후,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곧바로 전문 교육이 가능하다.

¹⁷ 호주: Lonelyplanet, 2001, 40p. 에서 인용.

¹⁸ Baccalauleats의 줄임말.

(3) 대학

뉴칼레도니아에는 1개 대학에 두 개의 캠퍼스가 있다. 이 대학교에서는 언어, 현대 문학, 인문과학, 법, 경제, 과학기술, 생물학, 전자, 역사, 지질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공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은 제도상으로 약대, 의대, 치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 제 1기 과정, 제 2기 과정, 제 3기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기 과정은 우리나라의 대학 1, 2학년 과정에 해당된다. 전공학과에 소속되어 전공과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교육을 받는 일반교육 과정으로 2년을 마치면 인문 사회계열은 일반 대학 교육 학위를 이공계열은 과학 기술 대학 교육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진급 시험에 합격해야만 1학년부터 2학년으로의 진급이 가능하다. 제 2기 과정은 학사 (licence), 석사 (maitrise), 과학기술, 경영학, 경영전산학의 특수 석사 (MST, MSG, MIAGE), 마쥬스페르 (Magist re)과정이 있다. 제3기 과정은 1년 이상의 고급연구과정 (DEA)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학 Maitrise, 엔지니어학, 혹은 이에 상응하는 학위소지자이다. 대학의 3기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과정마다 졸업이 가능하고 그 대신에 자신이 이수한 과정의 정도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차이가 있다.¹⁹⁾

대학 문화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대학생들은 주로 운동과 디스코장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호주로 유학을 떠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졸업 후에 자신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지 뚜렷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²⁰⁾

프랑스식의 교육 과정에 이수하는 능력이 프랑스인 보다 떨어지는 카낙족은 고등교육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카낙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에서 파견된 프랑스인뿐이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세대가 바뀔수록 카낙족 가운데에서도 높은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늘어나 현재는 카낙족 대학 교수도 많아지고 있다.²¹⁾

(4) 요약

프랑스 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카낙족도 자신들만의 교육기관이 아닌 프랑스 정부가 만들어놓은 과정을 따라 교육을 받고 있다. 철저한 교육 복지 정책으로 어릴 때부터 의무 교육을 받으며 교육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프랑스인의

¹⁹⁾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sree99/120031885857> 에서 발췌.

²⁰⁾ 누메아, 2007년 1월 8일 프랑스인 대학생 Andy를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편집한 것임.

²¹⁾ 부라일(Bourail), 2007년 1월 19일 레이먼(Rayman) 교수님을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편집한 것임.

세계관과 가치관 등에 맞춰진 교육제도를 카낙족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고등 교육과정에서 뒤쳐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인과 카낙족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 제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에 그들과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로 상담가가 필요하다.

8. 종교분야

(1) 개요

뉴칼레도니아의 최초의 선교사는 쿡 제도에서 온 라로통가인이었고 이후에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가 사역을 이어 받았다. 이후 AOG(Assembly of God)가 뉴칼레도니아에 들어 온 후 카낙족 보다 비카낙족인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다 차츰 카낙족 마을에 선교사가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마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로마 카톨릭이 우세한 프랑스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 비록 카톨릭이 개신교 보다 월등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2/3이 기독교인이라는 성과가 있다.

(2) 종교현황

전체적으로 뉴칼레도니아는 88%의 기독교 점유율 중 65%는 카톨릭, 개신교는 23% 정도이고 성장율은 각각 0.6%, 0.1% 로 카톨릭이 높다. 그외에 이슬람이 3.8% 불교가 0.2% 무종교 혹은 기타가 7.6% 의 점유율 보인다.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기독교 점유율로 인해 성당이나 교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이민온 사람들이 불교 사원을 짓고 있다.

(3) 기독교 개요

1) 교회수, 교인수, 목회자수

뉴칼레도니아의 거의 모든 마을에 교회나 성당이 있다. 우리팀이 갔던 수도에 있는 교회의 예배는 교회를 가득 찰 만큼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목회자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에는 부족함이 없는 듯 하다. 휴가 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리서치 팀이 베이스로 삼고 지냈던 록키

벨리 교회는 바누아투 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여서 뉴칼레도니아의 교회와 교인의 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했다.

2) 기독교 반응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

뉴칼레도니아의 현대적인 모습과 걸맞게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들어보았기 때문에 뉴칼레도니아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철학이나 여타 종교와 다른 없는 또 하나의 종교생활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또 선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 어렵다. 이처럼 기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일 뿐이다.

반면 가까운 이웃에서 주변 섬나라 혹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등의 대륙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태평양 지역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종교 생활로만 인식되는 경향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카낙족의 독특한 성격, 지역적 특징을 잘 접목시킨 선교활동 및 기독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3) 종족 언어 성경 유무

카낙족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구사 할 수 있어서 종족 언어로 된 성경이 아닌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바누아투계 뉴칼레도니아인들은 바누아투어로 쓰여진 성경을 사용하기도 한다. 계속적으로 성경 번역 사역이 WBT-SIL 의 지원에 힘입어 세워진 ACLT(Association Caledonienne de Linguistique et de Traduction)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III-13〉누메아 시내에 있는 성 요셉 성당

IV. 카낙족의 선교 전략

1. 선교 현황

프랑스의 해외 준주국인 뉴칼레도니아는 비교적 높은 카톨릭 점유율을 보인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제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는데 실제로 카톨릭 성당 건축 시 건축 허가서를 쉽게 내주지만 개신교 교회 건축시 허가서를 잘 내주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일부 깨어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수를 늘리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각 마을마다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만 일요일에만 교회를 찾아 자신의 문제에만 연연해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명목상이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청·장년층에서 태평양 지역과 나아가 세계를 향해 선교사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선교에 대해서 강한 열정을 품은 몇몇 현지 목사님들 사이에 포아나 부라일 등의 뉴칼레도니아 중심 지역을 기점으로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비전들이 나누어 지고 있다. 한편 카낙족 사이에서도 각자 가지고 있던 관습적 우상들을 버리고 실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있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 IV -1〉록키 밸리 교회(Rocky valley church)의 주일 예배 중 찬양하는 모습

2. 선교 방해요소

(1) 정부의 종교적 차별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부가 수립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기본적인 정책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다. 따라서 뉴칼레도니아에서 카톨릭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뉴칼레도니아에서 새로운 개신교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시작할 경우에는 교회 부지 허가와 관련된 복잡한 서류 작업 과정 및 재정 지원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반하여 성당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행정상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허가를 내주며 재정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 때문에 뉴칼레도니아에는 개신교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정책적 차별이 종족 선교의 적지 않은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우리가 방문했던 록키 밸리 교회는 바누아투 인이 세운 오순절 계통(Assembly Of God)의 개신교 교회이다. 40여 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한 이 교회는 아직까지도 허름한 나무 판자로 지어진 옛날 모습 그대로이다. 정부로부터 교회가 세워진 부지에 대한 교회 측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허가를 받지 못하여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이미 8년 전에 교회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교회 부지 허가 신청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하지 않으며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교회측에서는 계속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다. 제대로 된 교회 건물이 건축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이 선교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2) 접근성의 한계

선교적 접근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카낙족 마을에 방문할 때의 어려움이다. 앞서 ‘문화분야’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카낙족에게는 다른 마을에 방문 할 때 출입의 허가과 서로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보호를 약속하는 의미로 선물을 교환하는 라 꾸툼이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음을 앞에서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평양 멜라네시안의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을에 접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태평양의 섬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식수 제공, 교육의 기회 제공 등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선교적 접촉점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3) 지역 문화의 영향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으로 장기간의 유급 휴가 기간 있는 곳이다. 휴가철 이 되면 인적이 드문 마을을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상

점 등의 운영 시간이 짧아지거나 닫는 곳이 많다. 놀랍게도 이 휴가 기간은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본 리서치 팀이 이 곳에 오기 전에 연락을 취했던 목사님 역시 휴가 기간이라서 본 섬인 그랑테레에 계시지 않고 다른 섬에 계시는 바람에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묵었던 록키 벨리 교회에는 평일에 청년부 예배, 소그룹 모임 등이 있지만 휴가 기간이 되면 평일에 있던 이 프로그램들은 시행되지 않으며 주일예배만 드린다. 잠시도 쉬지않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나 그것을 망각하고 노동의 현장 중의 하나라고 여기는 경향은 교회가 다른 직장과 다르지 않는 물질주의를 피할수 없는 곳으로 전락케한다.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교인들을 일깨워야 하는데 앞장서야할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게 하는 사역자들의 휴가기간이야 말로 끊임 없이 선교해야 할 흐름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된다.

(4) 언어의 한계

카낙족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영어는 거의 못한다.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않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낙족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적어도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거나 프랑스어 통역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카낙어의 의미가 단절된 경우가 있어서 카낙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카낙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거나 충분치 않다.

3. 선교전략

(1) 복음의 접촉점

1) 성공 사례 (Case Study)

우리는 카낙족의 선교 가능성을 AOG교회의 사례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태평양 지역에는 오순절 계통의 AOG(Assembly Of God)교회가 많이 퍼져서 성장하고 있다. AOG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태평양 원주민들의 열정적이고 패기있는 민족성과 연관이 있고 또한 뜨겁게 예배하고 성령의 은사와 치유 사역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명한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의 큰 성령 집회가 있을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실제적 접근법

① 관계 형성을 통한 접근

상대방의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선 관계가 형성되면 무척 호의적인 카낙족의 성품을 고려할 때 충분한 관계 형성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불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② 제자 양육을 통한 접근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카낙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접촉점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과 믿음이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뿐 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매지도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 지는 것이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지인 사역자가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되어 세워 지면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상담적 접근

카낙족 젊은이들 그리고 다른 인종의 많은 젊은이들이 명확한 비전 없이 마리아나 또는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범죄들도 일어나고 폭력과 같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다.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꾸며 하나씩 배워가며 성장해 가야할 젊은이들이 마약과 약물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약물중독상담이나 진로상담을 해 주는 것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상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복음과 함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며 격려해 줄 때 이들을 자신들의 행동들과 생각을 고치고 바른 길,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④ 문화적 접근

누메아 중심에 있는 광장인 코코티에(Cocotier place)광장에서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음악과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음을 담은 내용의 뮤지컬, 댄스 혹은 음악 공연 등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 될 수 있다. 그리고 뮤지컬이나 댄스, 음악 등을 가르쳐 줌으로써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연 사역과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다.

⑤실제적인 필요에 따른 접근

다른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비교하면 뉴칼레도니아는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한다. 뉴칼레도니아의 마을 곳곳에 전기, 수도, 교통, 통신 등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점이 기존의 태평양 지역 선교에 있어서 활용되었던 접촉점들을 적용 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하지만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카톨릭에 비해 적은 현지 개신교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양육 프로그램과 이를 이끌어갈 현지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선교 전략 제언

1) 문화 사역

젊은 층은 대부분 음악과 댄스에 관심이 많음을 고려할 때 복음을 담은 공연을 제작하고 보여 주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공연을 보고 배울 사람을 모집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방과 후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나 음악과 댄스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 공연 작품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나누고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중에 마음으로 가까워 졌을 때 적절한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2) 전도 전략

관계를 중시하고 집단을 중시하는 카낙족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일대일 전도가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된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뉴칼레도니아 카낙인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리되신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키고 그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때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 영혼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이웃 국가와의 협력 사역

뉴칼레도니아는 지리적으로 피지와 바누아투와 이웃하고 있다. 뉴칼레도니아에 비해 선교에 대해서 앞서 있는 피지와 바누아투 선교의 성공 사례들을 배우고 또 연합하여 선교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뉴칼레도니아가 태평양 지역의 선교 주요 국가로 발전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다. 3국이 연합하여 태평양 지역과 열방으로 현지의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태평양 여러 나라에 수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 협력이 있다면, 태평양 선교 완성에는 더 이상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잘 훈련된 태평양 기독교인들이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될 것이다

(3) 주체별 역할

1) 현지 선교사

카낙족의 마을에 대부분 성당이나 교회가 있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실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이 곳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울 성경 공부와 같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이끌어갈 훈련된 현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지의 사역자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미션 센터(Mission center)와 사역자들을 훈련 시킬 인적 자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이 훈련 되고 훌륭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된다면 뉴칼레도니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그 때 이들을 통해서 태평양 지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성취 될 것이라 기대된다. 부흥성회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경건을 훈련해 가는 삶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고 영접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2) 현지 교회

현지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몇몇 있지만 극히 소수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다.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 단순히 주일 예배만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닌 삶 깊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일어 서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성도들이 성경 공부와 같은 제자 양육을 받고 성도들간에 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서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음악 강좌 등을 열어 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

²² 부라이일(Bourail) 방문, 2007년 1월 17일 폴 목사님을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편집.

3) 한국 교회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는 제자 양육과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교회에서는 태평양의 잠들어 있는 기독교인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깨워 훈련시킬 사람을 파송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한국 교회는 거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빛진자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태평양 땅 가운데 흘려 보내야 한다.

4)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GFR

단기 선교팀으로 그 땅에 나아가 그 곳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곳의 어떠한 선교적 필요들이 있는지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하고 전략적 선교의 방안들을 기도하며 모색한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을 발견해 내고 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전해 드림으로 현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선교 단체들에게도 이 정보들을 나누면서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사역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현지의 상황을 알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부대의 역할을 한다.

5) 그 외 관련 단체

현재도 진행중인 종족언어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인적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기독교 상담가들과 공연팀이 현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사진 IV-2〉뉴칼레도니아 Rocky Valley 교회 성도들과 함께

V. 나가는 말

뉴칼레도니아의 카낙족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인해 카톨릭이 대부분이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만의 독특한 방문 풍습을 잘 지켜주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단체 생활과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대부분 불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또한 개신교 성도들의 대부분은 선교나 봉사에 관심이 없고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낙족에게 온전한 복음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현지 인들을 제자로 양육시킬 훈련 받은 현지인 사역자가 필요하다. 현지인 사역자를 훈련 시키고 효과적인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현지에 선교 센터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센터에서 일할 사역자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교 강국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와 다른 나라의 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교 센터 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공연 사역을 하며 효과적인 선교적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공연사역을 준비해 와서 이 곳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함께 공연에 동참케 하는 것이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된다. 먼저 춤이나 음악을 통해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뉴칼레도니아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상담가가 필요하다. 현재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선교의 강한 열정을 품은 소수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뉴칼레도니아가 피지와 바누아투와 함께 태평양 지역의 주요 선교 국가로서 성장할 것이다. 이들이 태평양 선교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재 파송 되도록 우리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New Caledonia, Australia: Lonely Planet Leanne Logan, Geert Cole (2001).

Guide Mwakaa the pathways of Kanak thadition, Noumea: Tjibaou Emmanuel Kasarhérou (2000)

미국 중앙 정보국 <http://www.cia.gov/>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에프아이티 여행사 www.fitclub.co.kr/newcal2/

한국 선교 연구원 <http://www.krim.org/>

통계청 <http://www.nso.go.kr/>

미국중앙정보국 <https://www.cia.gov/>

개인 블로그 <http://www.shoestring.co.kr/destinations/aust/pac/newcalen.htm>